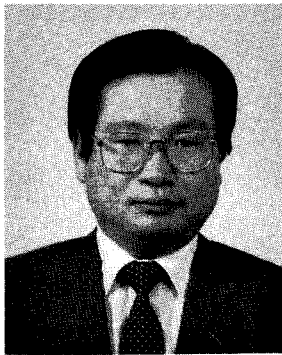


전기통신표준화 현황과 향후계획



문영환/
체신부 통신 기술 심의관

1. 서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국가간 상품교역을 증대할 목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해 1948년에 발효되었으며 그에 따라 관세가 실질적으로 인하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을 위하여 채택된 수입절차, 수입검사 등 비관세장벽도 완화됨으로써 세계 무역은 급신장하고 세계 경제발전은 괄목할 만큼 성장·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파동을 겪게 되면서 경기는 침체상황으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산업분야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정무역 또는 관리자유무역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경제발전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86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등의 다자간 협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는 출범 하였으며, 지금까지 상품 및 서비스협상을 추진해 왔다.

이 협상의 경과 과정을 볼 때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 공개주의 등과 같이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상품 또는 상품서비스만이 살아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열악한 전기통신산업이 앞으로 펼쳐질 무역 자유화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전기통신서비스와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에 근간이 되는 전기통신표준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고양시켜야 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2. 전기통신표준화 현황

전기통신표준화는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데이터 및 영상신호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통신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한나라의 전기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표준화 활동은 주로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설기관으로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와 국제전파통신자문위원회(CCIR)를 두고 있다.

CCITT에서는 전신·전화의 기술, 운영 및 요금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CCIR 또한 전파통신의 기술 및 운영에 대하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 않게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체신부에서는 전기통신의 주관청으로서 국내 표준화 활동에 관한 표준화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전기통신망, 전기통신기기 등의 표준을 제·개정하여 국내에 보급확산시키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자통신연구소에서는 표준화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국통신기술협회의 원활한 표준작업을 위해 지원하고 이를 통신산업체에 기술전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통신표준화 절차는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 통신산업체, 통신사업자, 연구소 및 학계 등으로부터 제안받아 단체표준을 작성하고 그 단체표준중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전기통신표준은 한국통신기술협회가 체신부에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신청하고 전기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권고로 채택·고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기통신표준화 실적은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 전화기, 팩시밀리, ISDN 사용자망간 접속기능규격 등 총 70건의 단체표준을 완료하였고 체신부에서는 이들 가운데 전화기, 팩시밀리, 인쇄 전신기 등 48건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체신부에서는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8. 12. 29에 민간기구로 설립된 한국통신기술협회를 '92. 8. 24일로부터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협회로 출범토록 하는 동시에 협회조직과 업무를 대폭 개편하였다.

그러나 국내 표준화수준은 아직까지 선진기술을 모방·개선하는 단계로서

전기통신표준화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실정이며, 표준화 연구인력도 필요한 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할 뿐 아니라 이것 또한 전자통신연구소 등 일부 연구기관에 집중됨으로써 국내표준화 활동은 전기통신시설의 기술개발이나 확충에 비해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전기통신표준화 추진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전기통신표준화분야는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된 수준이므로 통신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하여 체신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전기통신망 및 서비스의 고도화로 증가일로에 있는 표준의 제·개정작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의 표준 제·개정시에 표준작업분야별로 연간목표를 부여하고 전문분야별 작업반의 의장 및 부의장의 책임하에 표준작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며, 국내표준 제·개정에 기여한 바가 큰 민간기업등에 대해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기술전수등에 대한 우선 혜택이 주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국제표준화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ITU등 국제표준화 기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연구소 및 학계등의 담당조직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관련직원의 파견 및 회의, 세미나 등으로 최신 국제표준화 정보를 입수토록 할 뿐 아니라 국제기구 표준화활동을 위해 참가하는 국내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표준보급을 촉진하고 표준화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ITU의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국내전기통신마인드를 확산해 나갈 것이며 표준화 정보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한국통신기술협회에 표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전기통신표준화 전문인력확충방안에 있어서는 통신사업자와 통신산업체로 하여금 표준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토록 유도하고 표준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학·연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